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로 완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교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승

와서 보라!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그리스도의 기도(시편 16:1)

일시 : 2월 20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정관 위임목사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서 3:15~17)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어디에 서든지 유대교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게 항상 도전이 되었고 요란을 일으켰다(행 16:22~26, 17:6). 기독교는 이러한 주목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는 이방종교를 배타하고 도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행 14:19). 그러므로 이러한 요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조직화된 기독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밤중에'(행 16:25)는 온 성을 소란케 했다는 폭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밤이었다. 그러나 이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제가 있었다. 성령님의 은사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일을 함께 표현하였다.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들이 드리는 이 경배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 기쁨의 표현이다.

“무엇이 저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갖게 하였을까?”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가?”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 죄수들은 이들의 찬미소리를 들었다(행 16:25). 저들은 흥미를 갖고 마치 훌륭한 음악에 도취되었거나, 자신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듣듯이 이들의 찬미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바울과 실라는 건지기 힘든 악 조건 속에서도 영혼을 짓누르는 반대 세력 위에 빛나는 영혼의 승리자들이었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인간을 슬프게 하며 영혼을 움츠리게 만든다(고후 4:17~18).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곧 영혼을 위하여 일해 주는 영혼의 동역자들이었다. 영혼의 슬픔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진리이다. 십자가 후의 영광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신앙에서부터 나온다. 즉 복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롬 8:28). 이 세상의 진리는 “고칠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모두 고침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고후 6:4~10). 그리스도와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승리이다. 기독교는 한 번도 소극적인 면에서 복종하는 것을 가르친 일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될 때에 세상에 붙어 있는 사슬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있으며 만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음의 잔치인 청지기훈련이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성숙신학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단지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교훈이나 명령 혹은 약속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시 16: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셨고 완전한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청지기훈련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잔치는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기근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눅 14:23). 특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과 수종들은 많은 일꾼들, 적절한 기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지기훈련 당일에도 많은 혼잡이 우려되오니 서둘러 오시고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탁아부도 운영되며 어린이와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도 마련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청지기훈련 좌석배치도 및 안내는 본지 7면을 참조

*다음 주일(22일) 찬양예배 시 2009년 제1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

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비록 두 사람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고난을 맞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며 구주였으므로 이들의 입술에서는 경배와 찬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지진을 요구하지도, 발의 차꼬가 풀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였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이곳에서의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마 10:22). 천국에서 누릴 궁극적인 기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고난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서 태어난 기쁨이다(요 16:20). 이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삶도 동일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히 12:2). 바울과 실라는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으며 패배자와 같이 보여질 때도 있었다. 기독교는 이러한 고난이 실존적으로 올 때에도 그 속에서 찬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서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비록 간헐 있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현실 그리고 영원한 미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들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거룩한 성에 속한 시민들이더라(계 21:23~25).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성을 찾으려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이 땅 위에서는 그 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을 찾고 있다. 아무도 이 땅 위에서는 찾은 자들이 없다. 발견되지 않는 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성이다. 이 성은 건축될 것이며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히 11:8,10,13,16). 아브라함은 이 성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안에서 살았고 함께 교제하였다. 바울과 실라 역시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었다. 옥중에 있어 한밤중에 찬미를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밤이 없는 하나님의 성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며 새벽별들이었다. 두 사도를 매로 때리고, 피 흘리는 그들을 감옥에 던져 놓았던 자는 두 사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행 16:30~34). 이 일이 있은 후 2~3년이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찬미(빌 4:4~7)뿐만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썼다.

발목에 매인 쇠사슬은 여전히 빛과 같이 그에게 번뜩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직한 죄수였다. 바울은 아직도 어두운 시간 속에 있었지만 찬미하였다. 바울에게는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의 찬미는 계속되었다(요 16:32~33). 아멘.

THE FATHER AND HIS SON

⁽⁴⁶⁾Therefore He came again to Cana of Galilee where He had made the water wine. And there was a royal official whose son was sick at Capernaum. ⁽⁴⁷⁾When he heard that Jesus had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he went to Him and was imploring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for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 ⁽⁵²⁾So he inquired of them the hour when he began to get better. Then they said to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the fever left him." ⁽⁵³⁾So the father knew that it was at that hour in which Jesus said to him, "Your son lives"; and he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hold. (John 4:46~53)

In today's Bible passage a loving father seeks help from Jesus for his sick son. This wise man knew where to go when his child was in desperate need. The Bible does not mention the man's name, but it does tell of his residency and occupation. He lived in Capernaum and worked as a royal official(Jn. 4:46). Royal officials were rich and powerful. This father could afford the best doctors, treatments, and medicine available for his son. He realized the dangerous extent of his son's sickness. He knew no one could save his son's life but Jesus. When he heard that Jesus had come out of Judea into the town of Cana in Galilee, he left his home in Capernaum and journeyed roughly twenty miles to Cana to find Jesus. Once there, he desperately begged Jesus to please come to his home and heal his son who was at the point of death. Let's carefully look at the ministry story between Jesus and this noble father.

The noble father found Jesus. This man could have set off to find some new kind of remedy or physician, but instead he sought after Jesus. He chose Jesus. He heard about Jesus through others. Jesus' reputation for miracles, like changing the water to wine in Cana and healing the sick was well known. The noble man placed his hope in Jesus, "When he heard that Jesus had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he went to Him and was imploring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for he was at the point of death"(Jn. 4:47). If your child was deathly ill and you were intelligent, wealthy, and knowledgeable about medical conditions, where would you go for help? Most people would go to a human doctor, but this rich man travelled to Cana to ask Jesus for help. His heart knew that only Jesus had the resources to save his son. Do you have that kind of faith? Psalm 31:24 reminds us,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If you are really looking for Jesus, He will meet you wherever you are at. Psalm 33:18~19 say, "Behold, the eye of the Lord is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 hope for His lovingkindness, to deliver their soul from death and to keep them alive in famine." This royal official was definitely not just an ordinary Jew, he had faith in Jesus Christ. If you have faith, then you will call on the Lord Jesus. The Lord say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Jer. 33:3).

The noble father knew his own power wasn't enough to help his son. There are times in this life when earthly titles, power, and money are inadequate. The noble father said to Jesus,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Jn. 4:49). With humbleness, honesty, and desperation the noble father requested Jesus to save his son. In his heart he knew that only Jesus could save his son's life. He believed in Jesus. His position, wealth, knowledge, friends, and family could not help his son. He knew there wasn't a doctor or a medicine that could help, only Jesus. Jesus was his only hope. For his son, he travelled to a distant land, kneeled down and begged Jesus. Matthew 7:7~8 say,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The Lord also says,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Jer. 29:13). The noble man didn't know that distance wasn't a problem for Jesus. He thought Jesus needed to come to his house and touch his son. He learned that the Lord's word is sufficient.

The noble father believed what Jesus said to him, "Go; your son lives.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and started off"(Jn. 4:50). A person without faith could not have believed. The noble man started with faith and continued in faith. He walked home in excitement. He believed and obeyed. Each step he took toward Capernaum was a step of faith. Faith requires obedience to the Lord. You have to quench your desires and doubts. The noble father's faith was rewarded. His son was healed the moment that Jesus announced it, "As he was now going down, his slaves met him, saying that his son was living. So he inquired of them the hour when he began to get better. Then they said to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the fever left him.' So the father knew that it was at that hour in which Jesus said to him, 'Your son lives...'(Jn. 4:51~53). Jesus, unlike anyone or anything else, saved the noble man's son, "With people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Mt. 19:26).

The noble father became a wonderful witness, "...he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hold"(Jn. 4:53). When this noble man finally made it home, he told everyone about Jesus. His whole household believed,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Heb. 7:25). Amen. This noble man preached Jesus Christ,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Mt. 5:16). Jesus once made well a demon possessed man and told him, "Return to your house and describe what great things God has done for you..."(Lk. 8:39). The healed man proclaimed what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throughout the whole city! He didn't know a lot about Jesus, but what little he did know he told everyone. Amen. The noble man's son was healed and his household came together in faith. Truly, the noble man's faith saved his son and whole family.

My dear friend, this wonderful biblical story emphasizes the power of faith. People of all ranks and stations need the Savior. Jesus really does meet people where they are and minister to them. If you have found Jesus, then tell others about Him, so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come to faith and be saved. The Holy Spirit is given to all believers to empower them for witness. Please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call on Jesus now and forever. ■

아버지와 그의 아들

⁽⁴⁶⁾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⁴⁷⁾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저의 죽게 되었음이라 ... ⁽⁵²⁾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⁵³⁾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46~53)



김성관 목사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사는 곳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고, 왕의 신하였습니다(요 4:46). 그 당시 왕의 신하들은 부유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에게 최고의 의사와 치료, 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약 32km 쯤 되는 먼 길을 걸어 가 나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사를 찾아 나설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땀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과 병든 자를 고친 일 등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저의 죽게 되었음이라”(요 4:47). 만약 자식이 병 들어서 목숨이 위태로운데 여러분이 학식있고 부유하고 의학에도 일가견이 있다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나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시편 31:24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실 것입니다. 시편 33:18-19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왕의 신하는 보통 유대인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렐 33:3).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았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직위와 권력과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요 4:49). 겸손하고 정직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 하여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지위, 부, 지식, 친구, 가족은 아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외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나 약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는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 7:7-8은 말합

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렐 29:13). 처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아들을 만나주셔야만 나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요 4:50).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출발했고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된 마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그는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과 의심을 없애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아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기를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요 4:51~53). 어떤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 19:26).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 아버지는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요 4:53).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히 7:25).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예수님은 거러서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눅 8:39).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대에 전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알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이 나았고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믿음이 아들과 그의 온 식구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믿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영언토록 예수님을 믿어주시지요.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2. 11.)

안타까운 질문

(로마서 2:4)



반부(1~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온생을 전하였다. 노력과 공로, 지식과 경험이란 아닌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믿음을 무시는 자들이 있다. 1장 후반부(18~3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 2:5).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롬 2:17~18)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질문을 던졌다.

안타까운 질문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롬 2:4). 이것은 십자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중요하며,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아쩔 수 없다는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은가? 교화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등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십자가'는 없고, '나'만 있지 않은가?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알은 불가만 해매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한다(롬 3:25). 이 단순한 진리를 믿지 못해서 항상 우리는 파곤에 지쳐 있거나 병마에 시달린다(사 1:5).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는 진실로 무익하다(사 55:2).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한 모든 말과 행동을 버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나의 창녀 시절의 보호자이시요"(롬 3:4).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는 주님의 말씀에는 온종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렐 33:11).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존중해 여기자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은 우리

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실 뿐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단순히 믿자. 공용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시 78:38).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시 103:10).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하자(시 68:19). 우리를 영원한 지옥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존중해 여기자(시 86:13). "여호와는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니 많으니라"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시 145:8). 더이상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죄를 반복하지 말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칠 때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눅 13:7~9). 주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 거역자,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시니라"(렐 3:6).

어떻게 멸시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놀라운 뿐이다. 은총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런데 매번 우리는 은총의 손길을 멸시한다(잠 1:24~25). 악을 행하면서도 꾸꾸러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땀땀하다(전 8:1). 세상과 섞여 정욕에 따라 행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존중하며 말하고 철로를 부인한다(벧후 3:3~4). 이처럼 주님을 멸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아는 교만과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였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말라니라"(슌 1:12).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자 십자가의 길은 단순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에는 오직 믿음뿐이다. 매순간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 경험과 실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자. 믿음의 여정을 위한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인도하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계 3:20). 무엇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심로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매번 우리는 심사숙고하며 계산한다. 어쩌면 이러한 신중함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의 기쁨을 잠깐이나마 만족하게 해 줄지 모른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그따위로 잠깐의 행복과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질문을 멸시하지 말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존중해 여기자. 교만과 감시하지 않는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자. 주님의 말씀이라야 우리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취지 말고 그대, 알겠소나이다."(창 22:1)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실천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68

* 매주 월요일새벽7시(세탁 445)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11:1~11)

절 말씀은 예수살렘 입성 시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되고(마 11:2), 주인이 무엇이라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마 11:3)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였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으며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시기 전에 자신의 갈굼을 나귀 새끼의 등에 깔았다. 이러한 행동은 왕에 대한 경의이다(왕하 9:13). 겸손한 예수님은 비록 불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요(마 12:13; 마 21:5; 사 9:9).

이와 같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절정에 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 갈굼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다(마 11:8).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리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마 11:9~10). 특히 군중의 외침은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 맹인 거지 바디매오의 외침을 연상하게 한다(마 10:47~48). 군중의 찬송 이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찬송한 사람은 말씀에 정통한 종교인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맹인 거지 바디매오였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신의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에서의 부와 영광,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데 분주하지 않는가? 베들레렘 말무리와 나귀 새끼에는 전한 관심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귀와의 계산기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계산하고 있다. 이 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였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찬송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불쌍히 종교재판을 받았다. 이미 재재자로는 예수님을 심문(마 14:60)하였고, 참혹하게 시는 예수님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마 14:61)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였다. "내가 나그네 인자가 관능들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할 바를 구할 때 오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14:62).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빌미로 하여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 적용하여 사형에 처했다(마 15:26).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했던 학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들의 눈은 세상의 영광에 가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주이시며 그리스도시다(마 8:29~30).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게 존경받는 형통한 삶을 추구한다. 진실로 거룩한 성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 19:1).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의 길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라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같이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 118:25~26).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계산법에 맞지 않았기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도 나의 계산법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여자 혹은 십자가를 경멸했던 모든 행위를 진심으로 회개하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행복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쓰이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지난 해 남성구역장으로 임명받으며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당황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남성구역예배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역원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 성도간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된 예배가 많 때는 15명까지 부흥하는 구역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며, 첫 예배 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선교의 중요성을 몰라 항상 선교의 외인이었던 우리 가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7월 초, 누나는 7월 중순, 그리고 저는 8월 초에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선교는 주님과과의 여행이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매사에 비판적인 고교 2학년생인 아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은 올 여름 방학 때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모습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 했습니다.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가족성경암송(금요찬양집회)을 통하여 저희 가족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암송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없었고, 가족의 반대와 특히 사업상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과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훗날 우리 모습이 주님과 같게 된다는 약속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두 세계를 사는 저희에게 말과 허로한 사랑까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저희 가족을 새로운 교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성철(집사, 16교구)

아이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중동1부에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죄송한 마음뿐이다.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올해는 지난해와도 다르리라는 다짐을 하지만, 연말이 되고 아이들을 돌려 보내야 할 때가 되면 똑같은 후회와 함께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아니, 이번에는 특히 쉬고 싶었다. '나처럼 불성실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아이들은 내보다 나은 교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레 난 충분히 바쁘니까 좀 더 편한 곳에서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꽤 작았던 내가 "그만두었습니다."라는 일곱 글자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에도 나는 정신없이 바빴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반 배경표를 보게 되었다. 내 이름 밑으로 나린히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이름을 맨앞에 써 있는 내 이름을 보고 나는 더 이상 갈등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8명의 아이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한 내게 정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는다.

나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와 주신 예수님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처럼,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싶다. 부담감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사가 되고 싶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시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 나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게으르고 약한 종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세워 두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현정(교사, 중동1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남동생은 중헌교회에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너무 늦어졌습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멀리 떠났습나다. 거짓말 잘 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며 가증스러운 가짜 신자들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나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은 갑자기 잘 알고 병원에 다니다가 잘 낫지 않아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나다. 그런데 후두암과 식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아 급하게 수술을 해야 했습나다. 그 후 말을 할 수 없고, 마음껏 소리지를 수도 없게 되어 글로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나다. 갑자기 단한 일이라 자신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나다. 저는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성경말씀을 쓰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병상에서 쉬지 않고 손에 힘다 할 때까지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말씀을 쓰면서 회개하였지만 교회에는 갈 수 없습나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습나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여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나다. 그곳의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천사 같습나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환우들을 돌보며 보호자들을 위로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상처 받은 모든 것들을 싸매서도 아무만지지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나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찬양과 예배,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한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신 것 같습나다.

어느 날 저녁에 시간과 그 날은 트럼펫, 트럼펫 연주와 특별찬양이 있었습나다. 바로 그 예배 중에 남동생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나다.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사람으로 아무만지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나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효준(권사, 11교구)

그 사랑, 그 따뜻한 온기로

지난 20년 동안 정들었던 구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파견 구역장으로 가게 되었다. 두렵고 어색하여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일꾼이 되었으니... "주님 저에게 담대함과 겸손함과 지혜롭고 순종하며, 열심인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 구역식구들은 순수하고 따뜻하며 정이 많았다. 부지역장님은 "나는 이분들을 섬기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다.

외국인 가정에는 자녀가 3명이나 된다. 아이들은 동글동글한 눈을 깜빡이고 오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가 마치는 가 싶으면 콘소리로 "아멘."을 외친다.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권사님은 부지역장님이 경로답으로 모시러 가면 순순히 따라나오신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격려와 사랑으로 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집사님,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집사님,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예배를 준비하신다. 한 상에 옮기다가 돌리다 못 알아 **〈충현의 만수〉**를 보며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한다. 성경을 찾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를 도와가며 한 목소리로 통독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의 신앙간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축복을 얻고자 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구역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추운 동절기에 구역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하지 않았고 단번에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한 온기로 인하여 삶이 풍성하여지며 찬탄한 은혜가 있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복스러운 소식,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구역으로 전득을 소유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한다.

염기재(집사, 9교구)

놀라운 주님의 섭리

종동2부 1팀

98 사역을 하면서 집안에 아직 우상을 두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김한별

98 도착한 사역지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하루 전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셨고 내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이은이

98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선교기간 동안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김길성

98 정말 좋은 운전기사 아저씨를 통해 우리가 간 곳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듣긴 했어도 믿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 돌리는 영광과 감사는 더 컸다.

이한지

98 학교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찾아와 울음을 잘 따라해 놀라웠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정구환 교사

98 처음에는 '내가 외운 헌지 언어가 과연 사람에게 전해질까?' 하는 걱정과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으로 조금은 들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며 함께 찬송을 부르며 큰 은혜를 받았다.

김자은

98 선교훈련 중에도 아이들과 같이 가면 내 영적인 부분도 채기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보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 불평도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놀라게도 그 아이들을 통해 선교기간 내내 더욱 큰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정혜원 교사

98 어린 학생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무궁한 자애는 사랑으로, 또 능력 있는 자에게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다시 한 번 놀라고 감사드리다.

심금숙 교사

98 우리는 5박 6일간의 선교기간 동안 시작과 끝을 "고난을 기뻐하며 선교하자!"고 외쳤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에는 복음전파에 전념하였고, 밤에는 영적무장을 위해 쉬 없이 기도하였다.

박원희 교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0일(월) - 2월 18일(수)	대학부 2팀	전종일
2월 10일(월) - 2월 18일(수)	대학부 3팀	정재영
2월 10일(월) - 2월 18일(수)	대학부 4팀	문경숙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일(월) - 2월 11일(수)	직원 1팀	최준호

회개와 간구로 밤을 지새우며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하여 센터에서 흐르는 찬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09년 첫 선교팀이라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많이 앞서 부족한 점이 더욱 많았습니다. 정탐 사역을 축조전도로 시작하였으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작네요"라고 하는 실망의 소리에 회개와 간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먼 시골로 갔다. 어제의 사역과는 달랐다. 순수한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동2부 친구들, 탄력이 붙을 때쯤 주연을 배회하는 경찰과 리마승들로 인하여 일순간 긴장하였다. 우리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경찰서에서 거서도 복음을 전하는 등 주님의 은혜는 놀라웠다. 주께 너무나 감사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목이 쉬어라 외치는 복음사역과 마을 어귀에 울리는 찬양소리, 정말 신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 길에 집 앞 줄 줄 모르고 우리를 따르던 80~7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말씀을 따라 읽으며 함께 어울려 찬양과 율동을 하던 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렸다. "주님 불쌍한 이들 영혼을 굽어 살피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도록 기도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원망과 불평 없이 잘 따라온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임병준(안수상, 중동2부 2팀)



청지기칼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일했네." 어릴 때 나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그 때에는 단지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면 사랑도 받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선물이나 맛있는 과자를 받았으니 나의 어린 마음에는 그저 좋은 예수님으로만 여겨졌다.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믿음의 성장은 없었고 그냥 습관 대로 주일성수하며 교회에 다니다가 교사로 교회봉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교회의 교수, 전도회 등 여러 가지 일을 다치는 대로 정진없이 봉사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93년에는 장출혈로, 96년에는 폐혈관출혈로 사경을 헤맸으나 주님의 섭리로 생명을 얻었다. 그때에는 그것이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위임목사님이 전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나의 인생에 지표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위임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엄청난 의미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열매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을 내려놓고 천하고 초라한 말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골고다에서 가시면유관을 쓰시고 온갖 천한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랑 권세 이기고 삼 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가 거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고귀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야고 내가 받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와 나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찬송함이 마땅하다.

울 한 해 나는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포기할 것을 다짐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2008년도에 버리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옛 믿음에 젖은 신앙을, 내 믿음 속에 섞여있던 부당한 생각들, 나의 자존심, 교만, 전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혜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출몰 털어 버려 깨끗한 믿음을 올려 드러내었다고 다짐한다. 2009년도에는 나의 시작이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복을 위해 희생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에게 같이 오리라! 어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부를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세상 재물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선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작년 제1차부터 제3차 청지기훈련까지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소망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올해에도 제1차 청지기훈련에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무척 기대되고 기대가 된다.



조종민
(장로, 8교구장)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시편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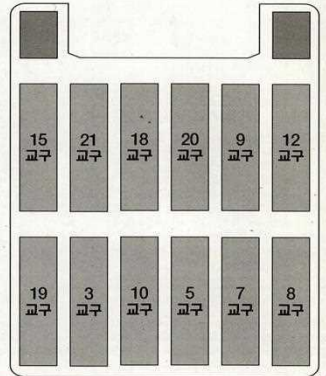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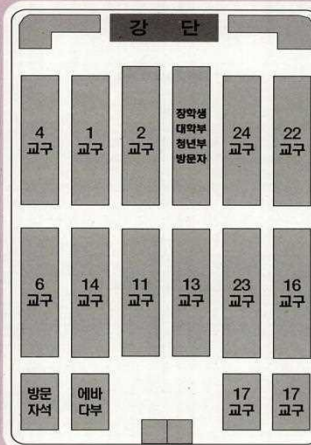
- 1.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께 강권함을 주시어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소서.
- 2. 모든 성도들 및 온가족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소서.
- 3. 복음이 필요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 4. 청지기훈련을 수종드는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은총으로 풍성한 청지기훈련이 되게 하소서.
- 5. 청지기훈련 당일(20일), 모든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쑥한 잔치로 나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20)

청지기훈련 좌석 및 안내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 출석표에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교구 및 부서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탁자부실(0세~3세:작은 방, 4세~7세:큰 방)을 운영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와 같이 참석할 분은 영아부실(부모와 3세 이하), 베타나홀(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된 차량은 서둘러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Jesus loves us very much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I am studying at weekday English class.
My name is Angel. (Kim-Eun-ae).
I am very happy and funny in lesson.
I take a lesson in Jesus Christ.
Jesus is the son of God. We great sinners.
Jesus crucified and buried.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Jesus forgives our sins. We should believe in Jesus.
Jesus will come again from heaven.
We should preach the word of salvation to others.
And Jesus wants us to repent our sins.
Jesus loves us very much. I love Jesus, too.
I want to recommend this English to my friend.
My teacher is very good teacher.
I really like this English, students, and teachers. Ha, Ha, Ha.
I am thank you for pastor Kim & Mrs Kim.
Because pastor Kim gives study English chance!!

나는 주간영어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의 이름은 Angel이지요.
나는 영어수업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그래서 행복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공부해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주간영어교실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선생님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예요. 나는 정말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주간영어교실이 정말로 좋아요. 하~하~하. 나는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이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도 나는 좋다

학교에서 집에오면 오빠 사가 남는다
조금쉬었다가 3시30분까지 나는 교로
간다. 주간 영어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야. 주 일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도 좋지만, 평일
에 영어를 배우러 교회에 가는 것도 좋다.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가께
말이 배울 수도 있고 예루살렘 50분경
도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배우다 보면
내가 영어로 대개 잘하는 것같은 생각이
든다. 수업후에는 영어게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4월 15는 영어로 같으니까. 알파벳도
잘 쓰지 못한다. 그래도 이제나는 잘할때
* 영어로 기록한다 물론 매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 기도할 때 마다

임마와 아버지가 많이친한 해주신다
내생애도 영어기록을 따라 한다 내
동생은 잘대단하겠구나. 좋아하는 텔레
비전, 책도 보지 못하겠구나. 좋아하는 영어
실에서 공부하는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간 영어교실이 좋다
선생님도 좋다 I love Jesus!

- Louis -

*영어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주간영어교실 (초등1~6학년)을 3월에 개강한다.

예수님께 대해 배우며 믿음을 강요해 세울 수 있는

*주간영어교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린다.

(2009년 봄학기 신청기간 2월 22일 주일까지, 문의/010-5882-8200)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0	윤선미	11	장년2부	허준숙(15)
201	박씨	25	외선부	황미희(7)
202	조순은	11	장년2부	김진희(11)
203	박우길	6	고등부	김하연(19)
204	이승철	16	장년2부	조은숙(7)
205	신은정	16	장년2부	김은성(7)
206	김정현	22	장년1부	김은진(23)
207	정영숙	17	장년2부	한정숙(24)
208	한영숙	17	장년2부	민정숙(6)
209	윤숙옥	17	장년1부	민정숙(6)
210	이영리	2	장년2부	윤순옥(2)
211	심재서	13	장년1부	정미선(13)
212	정동복	13	장년2부	정미선(13)
213	김정환	16	장년1부	신영희(20)
214	이현하	17	대학부	정희숙(17)
215	김정숙	11	장년1부	최정숙(17)
216	박애나	17	장년1부	김희정(17)
217	김진순	5	대학부	이주희(8)
218	박상진	18	장년2부	오하정(18)
219	최다인	13	소년부	최석수(17)
220	김민정	19	소년부	최석수(17)
221	송다인	19	소년부	최석수(19)
222	김영민	19	장년3부	송정현(11)
223	이현숙	9	장년2부	김현진(6)
224	최다인	13	장년1부	이현진(13)
225	김태우	22	장년3부	김도현(22)
226	오혜미	22	장년3부	김도현(22)
227	김영숙	6	고등부	윤은복(6)
228	오혜미	21	고등부	김정숙(21)
229	전 훈	21	고등부	김정숙(21)
230	전인성	11	장년1부	이영남(17)
231	전인성	10	대학부	이영남(17)
232	차지연	10	장년1부	최귀국(12)
233	조지혜	4	장년2부	윤준희(17)
234	조지혜	3	장년3부	서귀수(20)
235	박준미	11	장년1부	이영희(7)
236	조지혜	2	장년1부	이영희(7)
237	김진정	19	장년1부	박정숙(3)
238	김진정	3	장년1부	박정숙(3)
239	이수진	3	장년1부	박정숙(3)
240	이수진	3	장년1부	박정숙(3)
241	이수진	18	대학부	김재영(18)
242	이수진	5	대학부	김재영(18)
243	박지은	18	대학부	김재영(18)
244	김지은	22	대학부	김재영(18)

준경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